

도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 '전국 최고'

복지부 드림스타트사업 평가 우수기관... 완주·고창·진안 선정 완주군 국무총리 정부포상·고창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전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드림스타트사업' 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 우수기관(상위 20%)으로 완주, 고창, 진안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완주군은 국무총리 정부포상, 고창군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전북도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최고 지역으로 인

정받았다.

도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정), 가족, 입산부

대상으로 문제·육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도내 14개 시·군에 공무원 36명, 사례관리사 62명 등 총 98명이 매년 4천 3백여 건의 사례관리(건강검진, 심리검사, 기초학습지원, 안전교육,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가족상담, 입산부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44억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

다.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2일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보고대회' 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드림스타트사업 담당 직원 및 아동통합 사례관리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와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보고회

진안·고창·부안 3개 읍면, 4455개 행정리·반경계 확정 마쳐 도로·하천 등 마을경계 지형지물·경계 불일치 정비 등 성과 거뒀

전북도가 '2021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최종 보고회를 9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행정리 통·반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축하는 것이다.

그간 불분명하고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마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5년 동안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사업을 총괄하는 도와 진안, 고창, 부안군 그리고 사업수행기관인 한국토지정보공사 전북본부에 참석해 과업의 성과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과업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한국토지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과업을 위한

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마을경계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 정비 173건, ▲주민 집산 자료와 마을간 경계 불일치 정비 96건, ▲행정리·반 조정 29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자치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마을별 구역경계가 명확해져 하부조직 운영과 보조금 및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김평권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 행정구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신뢰감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이번 사업의 큰 의미가 있다"라며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 주민들과 같은 시선으로 사업을 바라보며, 남은 과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시도지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전국민 회비모금 공동담화문 발표

코로나19 위기 어려운 소외계층 위한 적십자 회비모금 동참 호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정부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이 지속되고, 적십자회비 모금에 전 국민이 적

극 동참할 수 있게 17개 시·도지사의 뜻을 모아 공동 담화문을 채택했다.

이번 담화문을 통해 "적십자 운동의 본질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데 있고, 적십자회비는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나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전하며, 적십자 회비모금 등 적십자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외세의 침략 속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속에 설립돼 산발·태풍 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지원, 적십자병원 및 혈액센터 등을 통한 공공의료사업 등 국가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왔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를 치료 했으며, 15개 혈액원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혈액 수급관리에

힘쓰는 등 공공의료체계 일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적십자회비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62일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해 추진되며, 이외의 기간에도 회비모금은 연중 계속된다.

회비는 지로납부, 핸드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으로 연 소득액의 10%가 세액공제 된다. /유호상 기자

도,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박차

전북연구원 주관, 삼락농정 수산분과 포럼 개최

전북도가 도내 '친환경·스마트 양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분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 친환경·스마트 양식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수산분과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유튜브 영상송출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삼락농정위원회 수산분과 김철호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부경대학교 이상철 교수가 '스마트양식 정책동향과 전북도의 대응전략'을, 원진ENG 이주석 대표가 '한국형 순환여과(K-RAS) 스마트양식의 산업화 현황과 전망'을, 이쿠아프로 윤지현 소장이 '친환경양식 인증사례와 전북도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군산대학교 김영식 학장의 진행으로 친환경·스마트 양식분야

의 전문가 10명(주제발표 3명 포함)이 수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도 친환경·스마트 양식육성 방향을 주제로 적극적인 토론을 펼쳤다.

또한, 각 시·군 및 수산업 유관단체, 어업인 등 30여 명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의 고갈 및 수산업과 관련한 국제규범의 강화로, 어선업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양식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산업의 친환경·스마트 양식기술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된 핵심 과제를 상세히 검토해 수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청렴도 기관 1등급 선정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4년간 1~2등급 받아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전문가·소속직원 등에게 받은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발생 점수 등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등급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외부 청렴도와 부패사건 발생 점수를 합산한 종합 청렴도 점수 8.83점을 받아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으며, 4년 연속으로 1~2등급 이상 성과를 냈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은 건설공사 현

장관계자들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부패성기구와 청렴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힘써 왔다.

또한, 기관 내 업무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감질대책을 수립하는 등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 최우수 청렴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부정부패를 적절히 억제하는 우리 청의 노력을 국민께 인정받은 것으로 직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을 위해 청렴한 자세로 일하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인공지능 횡단보도 교통안전 시스템 설치

전주 흥흥초·삼호저축은행 오거리·완주군 삼례나들목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교통안전 시스템이 도내에 구축됐다.

전북도는 '노인 보행자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교통안전 시스템 실증 기술개발' 사업을 전주 시 흥흥초등학교(삼천천면1길), 전주 시 삼호저축은행 오거리(현무3길), 완주군 하리버스정류장 인근(삼례나들목로) 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도내의 위험인지 및 회피 능력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능동형 교통안전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협업을 본 사업을 발굴했고,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주관기관인 (주)리퍼터와 참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에이치브레인이 지난 1년 동안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 및 특정지점에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해 보행자에게 충돌위험을 피하도록 안전 메시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은 주·야간 감지가 가능하도록 일반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융합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200미터 전방의 차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레이더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가 동시에 작동한다. /유호상 기자

고창군 공고 제2021-1967호

분묘개장공고(1차)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18조, 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인근사 및 관리인은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부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연번	소재지	분묘번호	지번	기수	비고(모면지)
1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1	산34-1	1기	산34
2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2	산34-1	1기	산34
3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3	산34-1	1기	산34
4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4	산34-1	1기	산34
5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5	산34-1	1기	산34
6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6	산34-1	1기	산34
7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8	산34-1	1기	산34
8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9	산33-9	1기	산33-1

2. 개장사유: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
 3. 공고기간: 최고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공고기간 만료후 회장하여 낱골 안치
 가. 유언묘지: 신고후 연고지와 협의개장
 나. 무언묘지: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고자)일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북분교로 559)
 6.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사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하겠습니다.
 8. 기타사항: 분묘개장 공고 이후 식물이 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적용합니다.
 9. 신고처: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 063 560 2565

2021년 12월 10일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